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라자로스 수사

루가 제 5주일

성 코즈마스,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와 어머니 성 테오도티

제 4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4조 부활찬양송 / 82, A 214

•주일 입당송 / 14, A 42

•청빈자들과 기적자들 찬양송 / 85, B 178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I고린토 12:27~13:8 / 봉독서 604

•복음경 : 루가 16:19~31 / 125, B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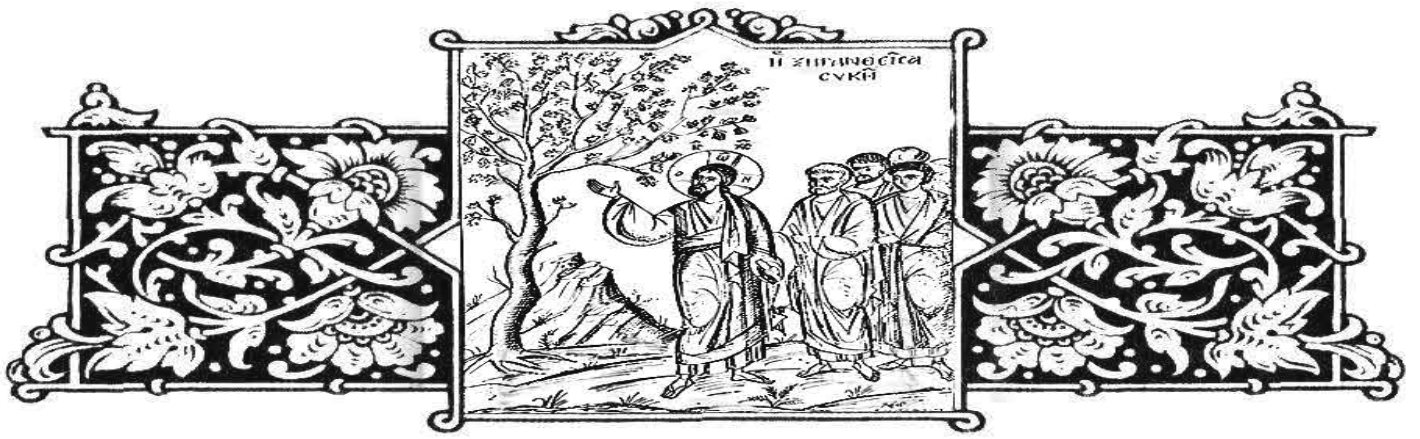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라자로스 수사

우리 교회에서 11월 7일 축일로 기념하는 라자로스 수사 성인은 끊임없는 금욕적인 투쟁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인은 보여주기 위해 덕을 행하는 것은 덕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덕을 칭찬 할 사람이 없다면 분명히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자신의 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팔로 외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나자로스 성인은 안 보이게 다녀도 성인이 베푸시는 덕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성인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성인은 이러한 위대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는 것을 주었지만, 성인은 금식으로 약해진 자신의 몸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성인은 1053년 안식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나 설교를 하실 때 자주 언급되는 나무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그중 무화과나무는 키가 크고 잎이 넓고 풍성하여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서 선교를 하신 후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멀리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지 가까이 가보셨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랐을 뿐이지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마르코11:14) 라고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말라죽고 말았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제 각각의 태어난 목적에 따라 조화롭고 아름답게 자기 몫을 다하며 영원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동산을 떠나온 이후 창조물간에는 조화가 깨지고 많은 것을 상실한 인간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방향을 벗어나 살아가기에 무화과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

고 가까이 가보셨지만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발견하실 수 없으셨다. 주님 보시기에 열매라는 결실이 없었기에 무화과나무는 결국 잘려나갔다.

결실을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내마음속의 신앙의 열매는 잘 익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헤아려 볼 때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으로 부터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착하게만 살았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나무는 나뭇잎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란 것처럼 보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말라죽는 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준비 없이 세상이 주는 물질적이 풍요로움에 안주하며 살거나,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는 세상의 평판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해 말라죽어버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교부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겸손과 회개, 자비와 사랑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인내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1)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전례에 쓰이는 책들(매일예식서, 시편집, 대사순절예식서, 오순절예식서, 각종예식서 등)은 단지 봉독자나 성가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신자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이 예식서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크게 도와줍니다. 이런 책을 사랑하여 매일 함께 하는 것

은 매우 좋은 일이며, 비록 조과의 일부분이나 만과, 석후소과, 성모소기원식의 성가 몇 개만으로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출생이나 병들었을 때, 약혼과 결혼, 죽음과 같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요한 일들에 특정한 기도를 지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입주식이나 사업의 개시, 새로운 학기의 시작 등에도 적합한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식사 전후의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음식물(영양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 술 취하거나 과식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는 것, 분별력과 절제를 기르는 것, 하느님이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 등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정된 시간에 교회에 모여 공동기도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교인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와 청원을 하느님은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기도의 유익함을 온전히 얻기 위해 신신학자 성 시메온이 가르쳐준 아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서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서있는지, 어떻게 성가를 부르는지 보려고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 자신만을 살피고, 당신이 부르는 성가와 당신의 죄에만 집중하십시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24일(토)에 루마니아인 Vasile Andrei와 몽골인 Zaya Chcindozn의 아이 Aura Andrei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진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마포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대성당 방문

지난 10월 24일(토)에 유동근 마포구청장과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구청과 구의회 다수 관계자들이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물과 성화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교의 영적 보물을 지켜나가고 있는 한국정교회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올해 계획했던 여름 English Camp 및 대체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7(토)~8(일) 2일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영적유익을 위한 프로그램에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진행상황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은 현재까지 설계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설계가와 감리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속건물 골격이 다 완성되었고, 성당은 지성소 외벽과 지붕 골조 작업 중입니다. 정교회 한국대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사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